2024. 3. 25. NO.802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VNPT

VNPT, 5G용 C2 입찰 낙찰!

베트남 우정통신그룹인 VNPT(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가 지난 3월 19일 오후에 열린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C2 대역 블록으로 지정된 베트남의 5G 3700-3800MHz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C2블록 입찰전에는 VNPT와 모비폰, 베트남 모바일 등 3개의 현지 통신사가 참여하였다. 이로써 3700-3800MHz와 함께 1800MHz를 소유하고 있는 VNPT는 향후 5G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6G 네트워크 개발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 큰 이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베트남에서 5G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3700-3800MHz에 대한 입찰을 낙찰받은 VNPT는 5G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동시에 VNPT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5G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VNPT는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IoT, AI,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5G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대중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MIC) 산하 무선 주파수 관리국에 따르면 15년 사용 기간 주파수 대역의 시작 가격은 1조 9,500억 동이며 낙찰자는 첫 2년 이내에 약정된 송수신기 수의 최소 30%를 배치해야 한다.

한편,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기술은 2025년까지 베트남 국가 경제성장률의 최대 7.4%를 기여하고, 2030년까지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5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VNPT

베트남 우정통신그룹인 VNPT는 베트남 정부가 소유한 최대 국영통신사로 베트남 3대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하나인 비나폰을 소유하고 있다. 1995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2006년 그룹화를 통해 지주회사가 된 후, 산하에 통신, 미디어, 금융, 제조업, 서비스 제공사 등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주식회사로 변환되었다. VNPT의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국내외 우편, 통신, IT와 인터넷망 기반 서비스, 광고, 컨설팅, 통신망과 IT 계열의 설계 및 장비 수출입, 부동산 임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하노이 Hoa Lac 하이테크 파크에 23,000m²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여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국내 및 해외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 제작된 것이다. 이로써 VNPT는 현재 높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하노이, 다낭, 호찌민에 8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VNPT는 CEO를 통해 지속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계획을 발표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매출 4조 4,680억 VND로 작년대비 2.14% 성장, 세전 자기자본 이익률 6% 기록하였다. 특히 VNPT는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두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베트남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기관 인적자원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안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정부 건설 프로젝트 내 주거지 기준 시민식별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출처: VNPT(링크), TheSaigonTimes(링크), 글로벌 ICT 포털(링크)

주요경제동향

주요기사

베트남, 대미 수출 회복세 진입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작년 말부터 꾸준히 반응하여 올해 두 달 동안 견조한 성장제를 기록했다. 미국의 소비 증가가 주문 증가로 이어진 탓에 올해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4% 급증한 174억에 달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이 하이테크 제품(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의류 및 신발에 의한 것으로 나머지는 가구 및 농산물이 차지했다. 미국은 수년 연속 베트남 상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소비 긴축으로 인한 많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약 9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2022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이 약 1,1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무역부 유럽-미국시장부 국장은 미국이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공급업체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주요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미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은 곧 무역액 2,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Vietnamnews(링크)

2023 베트남 GDP, 동남아시아 5위 4,300억 달러 달성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동남아시아에서 5번째로 높은 약 4,3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말레이시아(4,333억 달러)와 같고 미얀마(749억 달러), 캄보디아(309억 달러), 브루나이(151억 달러), 라오스(142억 달러), 동티모르(20억 달러)보다 높은 순위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GDP 규모는 약 104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가 4,300억 달러가 넘는 베트남은 현재 세계에서 35번째로 큰 경제국이다. 영국의 경제 및 기업 연구센터(CEBR)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8년에 1조 5,600억 달러의 GDP 규모로 21위에 올라 세계 25대 경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금융

베트남 예금금리 바닥 찍었나...시중은행 속속 인상 나서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뗏 이후 시중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속속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1분기 금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증권은 최근 거시경제 보고서를 통해 신용수요 증가에 따라 예금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1분기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BS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올들어 전년동기대비 수출과 투자, 소비 부문이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자금수요도 곧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BS에 따르면 올해 신용성장률(대출증가율)은 13~14%로 예상된다. MBS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약 4%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전반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끝나가는 추세”라며 “이는 환율상승 압력 해소로 이어져 베트남중앙은행이 현재 통화정책과 금리를 유지하는데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BS는 “이에 따라 뗏 이후 은행 간 고객 유치경쟁이 시작되며 단기 예금상품 금리가 속속 인상되고 있다”며 “현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5개월 미만 단기 예금상품 금리는 연 2.5~3.8%, 1년 만기 상품은 5% 안팎으로 오른 상태이며, 곧 대형 국영 상업은행들도 1년짜리 예금 금리를 인상해 연내 5.25~5.5%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인사이드비나(링크)

꽝닌성

출처: 사진(링크)

Region 1	Ha Long 시;
Region 2	Cam Pha, Uong Bi, Mong Cai시; Quang Yen, Dong Trieu 면;
Region 3	Van Don, Hai Ha, Dam Ha, Tien Yen현;
Region 4	그 외;

2024 년	최저임금(월급) (단위 : VND)		
Region 1	4,680,000	Region 3	3,640,000
Region 2	4,160,000	Region 4	3,250,000

명 칭 : Quảng Ninh

GRDP : 11.03% (2023년 성장률)

베트남 동북부에 위치한 꽝닌성은 인근 하이퐁 항구와 몽까이 국경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특구 및 일반 공단 간 편리한 운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중국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에 유리하여 중계무역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꽝닌성은 올해까지 4억 7,800만 달러 규모의 FDI 프로젝트 8건을 유치해 전국 지방 중 FDI 유치 2위를 기록했다. 현재 20개국의 약 2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총 투자 자본은 약 140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첨단 기술 및 환경 친화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에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전국 최고의 외국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꽝닌성은 올해 30억 달러 상당의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FDI 투자처로 꽝닌성의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 꽝닌성은 베트남 북부 지역 내 가장 많은 산업단지, 경제단지를 보유하였으며 꽝옌 해안 경제단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미개발 토지를 갖고 있다. 꽝닌성은 앞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자본 흐름의 새로운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꽝닌성(링크), VOVworld(링크)
Vietnamnews1(링크), Vietnamnews2(링크)

Bach Dang 공단

면적: 176ha
입지: 하이퐁 항구 8.5 km / 하롱시 30 km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예비 부품 제조 산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80-100 USD/㎡ (관리비 0.6 USD/㎡)
전기료: 피크 시간대) EVN에 따름
일반 시간대) EVN에 따름
유휴 시간대) EVN에 따름
물 사용료: 16.500 VND/㎥
폐수 처리: 투입 폐수 수질에 따름

출처: Kland(링크)

Dam Nha Mac 공단

면적: 1735ha
입지: 하롱시 50km
주요 산업: 소비재 제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105 USD/㎡ (관리비 0.35 USD/㎡)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휴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 USD/㎥
폐수 처리: 0.28-0.35 USD/㎥

출처: Kland(링크)

*임대료 및 기타 요금에 관하여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InvestVietnam)를 우선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시세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中·베트남 탄소섬유 투자 무한 확장

효성첨단소재가 '꿈의 신소재' 탄소섬유 투자를 확대한다. 중국에서 연간 5,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 2개 설립을 모색하고 베트남에도 설비투자를 단행한다. 생산량을 크게 늘려 최대 탄소섬유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 탄소섬유 영토 확장과 시장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중국과 베트남을 활용해 실현시킬 계획이다. 13일(현지시각) 플라스틱유럽 등 외신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5~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복합소재 박람회에서 중국 탄소섬유 투자 계획을 밝혔다. 중국에 연간 5,000톤 규모의 공장 두 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저장성 자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남부 바리아 붕따우에서도 투자에 나선다. 1단계로 내년 연간 4,800톤의 공장을 완공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2031년 2만1,600톤 규모로 키운다. 김경환 효성베트남 법인장은 바리아 붕따우성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며 투자를 논의해 왔다. 올해 초에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열린 팜민찐 베트남 총리 주재 토론회에 참석해 투자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에 뽑히면서 '한-베' 교역 확대에 효성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출처: 더구루(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우/bhsjun@jplawvn.com /070-7011-736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 연대기

HYOSUNG ADVANCED MATERIALS

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출범한 효성그룹의 주력 사업회사 중 하나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내연기관 및 전기차용 타이어코드 제품을 비롯해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용 탄소섬유, 방산 소재인 아라미드, 시트벨트, 에어백, 모빌리티 인테리어 등 세계 3위 내 제품 10여 개를 보유한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이다. 현재 효성그룹은 1996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였으며 2008년 동나이성에 스판덱스 공장을 준공하고, 2010년 스틸코드 공장, 2012년 테크니컬원사 공장 등의 신규 생산시설을 잇따라 설립하며 지난해 기준 32억 달러를 투자,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효성그룹의 베트남 내 생태계를 토대로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탄소섬유 생산법인 '효성 비나코어 머티리얼즈(Hyosung Vina Core Materials Co.Ltd)를 신규 설립하여 베트남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번에 계획 중인 바리아붕따우 탄소섬유 공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성 지도부 및 관련부서 관계자와 함께 투자절차를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5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19만 1,199m² 부지에 연간 2만 1,600톤 규모 생산시설을 3단계에 걸쳐 건설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4,800톤 규모 공장 건설, 2단계 -연산 7,200톤 추가, 최종 3단계-연산 9,600톤 생산용량 추가 등을 계획 중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서 상위 3위권에 든다는 포부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효성첨단소재(링크), 2023년 영업보고서(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